

공양 올린 승려가 36만, 하루에 3000명 출가 시켜

<41> 요(遼)·금(金)·원(元)대 제왕들의 불교정책

송대(宋代)에는 북방으로부터 요(遼), 금(金), 원(元)의 소수민족들이 차례로 흥기해 중원(中原)을 위협했다. 이들 삼국의 통치계층은 당시 주류를 차지했던 유가(儒家)를 받아들인 채 불교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따라서 이들 삼국황제들의 불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요하(遼河) 유역에서 생활하던 계단족(契丹族; 거란족)들은 아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통치로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신책(神冊) 원년(916)에 계단국을 세웠다. 대동(大同) 원년(947)에 아율덕광(耶律德光)은 국호를 '요(遼)'로 개명했고, 보대(保大) 5년(1125) 금(金)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9대 황제 210년의 역사를 남겼다.

요대의 불교는 중국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전래됐다. 당(唐)의 천복(天復) 2년(902)에 하북과 하동의

종은 유가와 불교의 전적에 정통했다. 특히 범어(梵語)에까지 능통해 막힘이 없었고, "널리 공부해 용수(龍樹)를 회통했고, 근원을 찾아서 마명(馬鳴)을 홀로 헤아렸다"고 할 정도로 교화에 뛰어났다. 특히 도종은 화엄에 뛰어어나 <화엄경수품찬(華嚴經隨品贊)>과 <화엄경찬(華嚴經贊)> 등을 찬술했다. 또한 도종은 계율을 매우 중시해 궁정에 계단(戒壇)을 시설해 율학(律學)을 융성시켰다. 재위 중에 "공양을 올린 승려가 36만이고, 하루에 3000명을 출가시켰다"(<요사>권22 <도종기>)는 기록이 보일 정도이다. 이로부터 요국의 황제들은 대부분 불교에 귀의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또한 그에 따라 대규모의 불사(佛事)들도 함께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요대의 역사와 남긴 문헌들에 따르면, 황제와 귀족들이 거금과 막대한 토지를 보시해 사찰을 장건하

당시 주류였던 유가 받들며 불교에도 우호적

황제·귀족들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융성

9군(郡)을 점령한 후 거란족 최초의 사찰인 개교사(開教寺)를 장건했다. 그 후 신책 3년(918)에 태조 아율아보기는 "공자묘와 불교사찰, 도관을 각지에 건립하라"는 조칙을 내린다.<요사(遼史)>권1 <태조본기> 천천(天贊) 5년(926)에 태조는 발해(渤海)를 평정하고 대부락(大部落)마다 사찰을 건립했다. 모두 '천웅사(天雄寺)'라고 통칭해 발해로부터 귀화하는 승려들을 머무르게 했다. 태종인 아율덕광이 천천(天顯) 11년(936) 연운(燕雲) 16주를 차지하고 유주(幽州)를 연경(燕京; 현 北京의 서남부)으로 바꾸면서 요의 황제들은 불교를 극도로 중시하기 시작했다. 회동(會同) 5년(942)에 태종은 황태후가 병에 걸리자 망약을 친히 복용시키고 보살당(菩薩堂)에서 기도를 올리며 승려 5만 명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요사>권4 <태종기> 이로부터 불교가 아주 빠르게 요나라에 전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율용서(耶律隆緒; 983~1031 재위), 아율진종(耶律眞宗; 1031~1055 재위) 등의 황제들도 모두 불교에 귀의해 친히 수계를 받았고 많은 사찰들을 장건했다.

도종(道宗)인 아율홍기(耶律洪基; 1055~1101 재위)에 이르러 요대의 불교가 극성기에 이르렀다. 도

종은 유가와 불교의 전적에 정통했다. 특히 범어(梵語)에까지 능통해 막힘이 없었고, "널리 공부해 용수(龍樹)를 회통했고, 근원을 찾아서 마명(馬鳴)을 홀로 헤아렸다"고 할 정도로 교화에 뛰어났다. 특히 도종은 화엄에 뛰어어나 <화엄경수품찬(華嚴經隨品贊)>과 <화엄경찬(華嚴經贊)> 등을 찬술했다. 또한 도종은 계율을 매우 중시해 궁정에 계단(戒壇)을 시설해 율학(律學)을 융성시켰다. 재위 중에 "공양을 올린 승려가 36만이고, 하루에 3000명을 출가시켰다"(<요사>권22 <도종기>)는 기록이 보일 정도이다. 이로부터 요국의 황제들은 대부분 불교에 귀의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또한 그에 따라 대규모의 불사(佛事)들도 함께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요대의 역사와 남긴 문헌들에 따르면, 황제와 귀족들이 거금과 막대한 토지를 보시해 사찰을 장건하

거나 대장경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다양하게 보인다. 또한 요대의 민간불교에서는 특히 '결사(結社)'가 유행했다. 이른바 '천인읍사(千人邑社)'라는 결사의 형태인데, 수많은 신도들이 힘을 모아 보시를 하는 형태로 그 목적에 따라 '사리읍(舍利邑)', '미타읍(彌陀邑)', '도솔읍(兜率邑)', '공동탑읍(供燈塔邑)' 등 다양한 명칭들이 나타난다.

금(金)의 불교 역시 황제와 귀족들의 주도로 일어났다. 북송의 휘종(徽宗) 정화(政和) 5년(1115)에 본래 요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女真族) 완안부(完顔部)의 추장 아골타(阿骨打)는 요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금국(大金國)'을 건립했다. 금의 천회(天會) 3년(1125)에 북송의 군대와 연합해 요를 멸망시키고, 다시 그 다음해 변경(汴京)을 점령해 북송을 멸망시켰다.

거란족과 다르게 여진족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향으로 이미 불교가 전래돼 널리 퍼져 있었다. <금사(金史)>에 따르면, 개국공신인 종용(宗雄)이 죽자 태조 아골타는 그를 위해 불사(佛事)를 건립했다.<금사>권37 <종용전> 또한 아골타를 계승한 태종 완안성(完顔晟; 1123~1135 재위)은 불교에 귀의해 황궁에 부처님을 모셨다. <불조역대통제(佛祖歷代通載)>권19에 따르면, 천회 원년(1123)에 "황제가 궁



그림 · 김홍인

성에서 친히 서광을 보았는데, 빛 가운데 부처님이 현현하셨다. 그에 따라 조칙을 내려 불상을 조성해 궁성에서 공양했다. 황제는 친히 출고 뒤었고, 매번 무릎을 꿇고서 공양 올리기를 몇 년이 지나도록 힘들어하지 않았다. 매년 법회를 열고 1만 여 승려에게 공양했다"라고 한다. 세종(世宗) 완안용(完顔雍)이 즉위(1161)하면서 금양조는 전성기에 이른다. 세종은 흥불정책을 세워 대정(大定) 2년(1162)에서 대정 24년(1184)에 이르는 기간에 연경에는 대경수사(大慶壽寺)를 건립하고 막대한 재물과 전답 20경(頃; 1경은 약 2만평)을 희사했다. 또한 양산(仰山)에 서은사(棲隱寺)를 장건해 전답을 보시하고, 1만 여 승려를 출가시켰다.

그러나 세종은 당시 금나라는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군비의 확충을 위해 송의 제도를 모방해 공개적으로 도첩, 사호(寺號), 사액(寺額), 자의(紫衣) 등을 매대했다. 이는 불교가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긍정적 인 효과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승가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장종(章宗) 완안경(完顔璟)은 기본적으로 세종의 불교정책을 계승했다. 명창(明昌) 4년(1193) 북방의 저명한 만승행수(萬松行秀) 선사를 궁궐로 청해 설법을 들었다. 승안(承安) 2년(1197)에 다시 재정의 궁궐으로 도첩을 매

매하게 됐고, 승안 4년, 태후의 유명(遺命)으로 화룡부(和龍府)에 대명사(大明寺)를 건립해 3만 승려를 출가시켜 도첩을 보시하고 명복을 기원케 했다. 그러나 장종은 세종보다도 철저하게 승가를 관리했다. 승려의 사도(私度)를 철저히 금지시켰다. 왕실과 귀족의 집에 출입을 통제했고, 3년에 한 번씩 승시(僧試)를 치르게 했다.

승려들에게 부모를 참배케 하고 상례를 치르도록 규정했다.<금사>권9 <장종기> 장종 이후, 몽고군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군비의 지출을 위해 더욱 많은 도첩 등을 매대해 결과적으로 승단의 부패와 타락을 부추겼다.

세조 쿠빌라이는 승불(崇佛)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불조통기> 권48에 따르면, 원의 중통(中統) 원년(1260) 세조는 티벳 사카파(薩迦派)의 5대조인 판다타(八思巴)를 '국사(國師)'로 삼아 옥인(玉印)을 하사해 전국불교를 다스리게 했다. 10년 후, '제사(帝師)'로 승격시키고 '대법보왕(大法寶王)'에 봉했다. 세조의 승불에 대한 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불조역대통제> 권22에 보이는데, 세조가 제사에게 묻기를 "사찰을 건립하고 탑을 짓는 것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라고 하자 제사는 "복(福)과 음덕(陰德)이 무량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부터 인왕호국

사(仁王護國寺)를 건립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세조는 매년 보시를 행하고 승려들을 출가시키며, 대장경을 읽으라는 조칙을 내렸다. 불법으로서 황실을 지키고자 궁정을 "모두 범자진언(梵字眞言)으로 장식하고, 행주좌와에 불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조는 다만 '구복(求福)'과 '진국(鎮國)'을 위한 것이었지, 보다 깊은 교화이나 선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조의 불교정책은 원대에 그대로 지속됐다. 황실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교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계기가 됐다. 지원(至元) 28년(1291) 선정원(宣政院)의 통제에 따르면, 천하의 사찰이 4만2000여 개소, 승니(僧尼)가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고 돼 있다.<불조통기>권48 이는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당대(唐)보다도 더욱 큰 규모다.

요·금·원대황제들의 불교정책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고 평가된다. 이러한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에 의한 친불교적인 정책, 특히 원대 황실의 재정적 지원은 유학을 중시한 양송대에 침체되었던 불교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하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설법·화술

최면, 설법, 강의, 축사 등

1. 교육 일정

- ◆ 개강일자 :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7시~9시까지
- ◆ 모집인원 : 종합반 선착순 10명 개인지도반 수시접수
- ◆ 교육비용 : 35만원, 2개월과정(8회)

2. 교육 내용

- ◆ 설법, 강의, 축사, 회의 토론 등, 실습
- ◆ 말에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실습
- ◆ 대인 불안 공포증 없애기,
- ◆ 음성언어, 제스처, 시선 처리 등, 실습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3. 지도 교수

김철희 박사 40년 노하우 직접지도

-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취득 / 최면지도사
-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H·P 011-248-1567
TEL 02)747-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대한불교 비구니조계종 입증을 환영합니다

첫째,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도의국사를 종조로 소의경전은 금강경 육조단경으로 하고 기타경전은 제한치 아니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종도님을 거쳐 현재 가지신 신분과 재산 등 기록은 그대로 인정하며 종단운영은 맑고 투명하게 종도님들과 더불어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최초의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이 남존 여비의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출가하여 지금의 비구니스님의 설자리를 마련하였음을 감사하십니다.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의 뜻을 받들고, 양성평등시대에 걸맞는 비구니스님의 입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불자님들의 포교를 확대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입 증 안 내

- 종단명 :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 종교단체등록 (26111-00154)
- 비영리법인고유번호 (620-82-67363)
- 총무원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 연락처 : 052)225-7378 / FAX 052)277-0194 H.P 010-7135-737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ak.com

43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전문가반 개강

- ◆ 수련일자 : 9월 5일(토) 오후 2시~4:20(주1회 6개월)
- ◆ 대상자 : 기치유능력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양성반 개강

- ◆ 수련일자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4:20(11주과정)
- ◆ 대상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문의

-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